



‘코리아 와인 챌린지 금메달 수상와인’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말벡 '라스 피에드라스'

Trapiche Single Vineyard Malbec 'Las Piedras'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말벡 100%		
알코올	1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산딸기와 같은 신선한 붉은 과일향과 함께 토스팅한 오크의향까지 다양한 향이 후각을 자극한다. 입안에서 다시 한번 화이트 초콜렛, 갓 로스팅한 커피빈, 코코넛, 카라멜, 바닐라의 향 등 다채로운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잘 숙성되어 라운드한 탄닌의 질감이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구조감을 남긴다.		



제품설명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 '라스 피에드라스'는 멘도자에서도 안데스 산맥에 가장 근접한 빈야드로, 스페인어로 '돌, 바위'라는 뜻을 가진 포도밭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바위와 자갈질, 그리고 오랜 수령의 야생 호두나무 서식지가 혼재되어 있는 '라스 피에드라스' 포도밭의 전경을 동양적인 느낌으로 표현한 레이블이 인상적인 와인으로, 코리아 와인 챌린지 2012년 참가 와인 중 '최고의 레드 와인' 트로피를 수상했다. 발효 후 18개월간 새 프렌치 오크통에서 숙성하여 얻어진 다채로운 향과 부드러운 질감이 인상적이다.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